

□ 화산면

*가상리

약 500여년전에 구의현(九宜軒) 권열선생이 안동에서 처음으로 入鄕하여 정착하셨으며 당시부터 추자(楸子) 나무의 숲이 무성하였기에 가래실이라고 하였고 독조골(獨造谷)은 옛날 홀어머니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하며, 새애모래와 모산 모두 가래실 아래에 있는 마을로서 예부터 사람들이 정착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당곡리

당곡, 갱빈마, 당외, 움조골, 저거너마를 합하여 당곡리(堂谷里)라 하며 약 500여년전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농경(農耕)해 왔으며 조선조때에는 신녕현 질림면의 지역인데 1914년 부군 통폐합시 신녕현은 영천군에 속하게 되고 당외리와 곡산리를 병합하여 새로 화산면에 편입하게 되었다.

*당지리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500여년전부터라고 생각된다. 범의 안내를 받아 귀한 약을 구해 부모의 병을 치료한 공으로 나라에서 내린 월성 이씨의 효자각이 있으며 부주골은 배가 떠있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고 화지골은 창을 만든 풀무가 있었으며 더욱이 임란때는 그의 역할이 대단했다. 지금도 불무골 또는 불매골이라고도 한다. 섭제골은 섭제사(攝提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예부터 사람이 정착하여 살았다고 한다. 또 임란때에는 쇄으로 성을 쌓아 무사히 피난했다고도 한다.

*대기리

선돌배기 선도리(立石)는 큰 마을 동쪽에 선돌(立石)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도 10여가구가 살고 있다. 아랫가래실-하신기(下新基)-는 대기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현재 안동 권씨 40여호가 집단으로 거주하고있다. 대동리는 임진왜란때 우리의 의병들이 많이 주둔했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영천신녕간의 국도변에서 약 1km쯤 떨어진 곳이다. 마을에 立石이 있을 정도이고 큰 강과 넓은 들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고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암리

1680년 김해 김씨가 이 마을을 개척하고 마을 앞 냇가에 정착하여 살던 중 동네 어귀의 큰 바위가 있어 지성을 다하여 빌면 덕을 본다하여 덕암(德岩)이라 불렀다

*부계리

울뱅이는 신라시대에 우계사(牛溪寺)라는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마을이 그 아래에 생겼다. 남서쪽에 대장골(大長谷)이 있고 옛날에 집터였던 대철배미라는 논이 동쪽에 있으며 부자산 울방못, 울방들이 있다. 아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서쪽에 유병사묘(劉兵事墓)가 있다. 제부골(諸富谷)은 지형이 제비집 모양이고 이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된다고 하여 제부골이라 부르며 서북쪽은 삼밭골이라는 골이 있고 남동쪽에는 회화나무가 있다.

*삼부리

토지가 비옥하고 큰 평야에서 약간 외진 곳이라서 예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가암못

안이 큰 마을로서 500여년전부터 사람이 정착했다고 생각되며 병마(兵馬)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라고 전한다. 병마(兵馬)는 임란시 우리 의병들이 위군 격전하던 곳이라 하며, 삼거리는 조선시대 때 청송, 포항, 경주 상인들이 쉬어가는 세 갈래 길이며 하양으로, 경주, 안동으로 가는 길목이다. 마을 형성은 800여년전으로 추정된다.

* 석촌리

석촌(石村)은 본래 영천군 질림면(迭林面)의 지역으로 바위가 있기에 이름이 생겼으며 조선 인조 때 경주 김씨 형제가 화북 자천리로 부터 이주해와 형의 호는 "석정(石亭)"동생의 호는 "계정(溪亭)"이라 하였다. 이름 첫 字자를 따서 석계정(石溪亭)이라 부르다가 석촌이 되었다.(1914년) 와룡(臥龍)은 석촌 남쪽 1.5km지점에 있는 마을로서 용이 누운 모양의 뒷산을 간직한다 해서 생긴 이름으로 10가구가 살고 있다.

* 암거리

상신기는 지금부터 약400여 년전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지금 마을은 상신기 서쪽에 있으며 들에 큰 돌이 2개 있었는데 1개는 일제시대때 사방공사를 하느라 부숴 버렸으며 입암(立岩)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같은 바위가 두개 우뚝 기둥같이 서 있다. 납세미는 마을 가운데 샘이 있었는데 밤이면 납(원숭이)이 물을 먹으러 내려와서 사람들이 이 샘을 메워버렸다 한다.

* 연계리

신녕현의 아촌면(阿村面) 울전(栗田), 굴견(屈見), 월계, 덕산(德山) 일부, 영천군 북습면(北習面) 용호일부와 덕양 용강의 각 일부가 합해서 된 마을이다. 가일(佳日)은 약 200여년전 나주 정씨(羅州 丁氏)가 마을을 형성했다 하며, 굴견(屈見)은 중심되는 마을로 위에 굴이 있는데 장군이 나와 말을 타고 하늘로 갔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고 전하며, 울전(栗田)은 300여년전에 생겼고, 연못안은 조선조 영양 김씨(英陽 金氏)가 入居하여 개척한 마을이다.

* 용평리

민덕은 예부터 사람들이 정착하여 생활해 왔으며 앞에는 민덕들, 남쪽에는 더미골 서쪽에는 민덕보가 있다. 하나골은 민덕 동쪽에 있는 마을로 골이 하나뿐이라서 붙인 이름이며, 질림주막(迭林酒幕) 또는 예림주막(藝林酒幕)은 민덕서쪽에 있는 마을로 1799년 영천군 질림면(迭林面) 소재지로서 옛날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쉬어가는 주막이 있었다 한다.

* 유성리

넓은 평야와 넓은 구릉의 기슭에 있어 인간의 정착은 옛날이라 추측된다. 류정(柳亭)은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그 아래가 정자와 같은 역할을 해 주어서 선비들이 그 밑에서 글을 지어 놓았다고 전해오며, 朔室은 구성(九星), 구리(九里)라고 하며 삭일(朔日)에 별 9개가 전 동네를 비추어 주었다 하여 이름을 지었으며, 옛골 뒷골 앞골은 가일에서 괴질병 때문에 왼쪽고을로 이주하여 왔다하며 또 기와 굽던 굴이 있었다고도 한다. 역전부락은 남쪽에 있는 마을로 1930년대에 신작로와 역산역이 생긴 후에 갑자기 크게 번창하게되었다. 못 밑은 어상지(於相池)의 밑에 있는 마을 이름이며 갯빈마을은 신녕강변에 있고 유명한 청석보(靑石湫)가 있으며, 관사는 일제말엽에 중앙선 화산역에 근무하는 역원들의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름을 붙였으며, 원앞은 옛날 큰집, 즉 면사무소와 화산초등학교가 있었던 앞에 형성된 마을이라 해서 불려졌다. 지금은 이 두 큰집이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 졌다. 성동굴은 임진왜란때 이 곳에 성을 쌓고 왜군과 대항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화산리

효지미(孝旨尾)는 약 500여년전 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처음은 곽씨가 살다가 세조 왕위 찬탈시 피신한 정간공 양곡 양효지(良谷 楊孝智)가 살았던 곳이며 원래 신병현 대량(代良)동에 속했고 옷나무지(漆谷)는 화촌(花村)에서 동쪽으로 약 1km떨어진 곳에 있다. 살구정이 남쪽에 있으며 살구나무가 많았다고 전하고 곽산(郭山)은 곽씨가 8형제의 아들을 거느리고 살았으며, 화촌(花村)은 지금부터 약 300여년전 월성 이씨, 월성 김씨, 함안 조씨등이 살았으며, 지금은 이씨, 추씨, 김씨가 살고 있다.

* 효정리

괴정리(槐亭里)는 지금부터 약 500여년전 조선조 세종 당시 삼도(三道) 관찰사를 역임한 정몽길(丁夢吉)선생이 入鄕하여 세운 마을이며 선생의 유허비와 활천정(活川亭)이 있고 또 마을을 상징하는 괴목들이 많이있다. 효자문은 정몽길 선생의 후손인 정응거(丁應居)장군의 형이 임진왜란때 부모를 위해 단신으로 왜군과 싸워 순사했으며 그의 처 오천정씨는 왜군에 붙잡혀가다가 말 위에서 자결하니 이들 부부의 효와 열(烈)을 높이 찬양하여 마을 앞에 효열정각(孝烈旌閣)이 세워졌다. 이로써 효자문이라 칭하게 되었다. 서당골(書堂谷)은 서당이 있는 곳이며 샘골은 천지개벽때 산꼭대기가 마치 쇠머리모양으로 생긴 노고산(路姑山)이 모두 물에 잠겼다고 전해오며 또 산아래에는 장군수라는 화수(華水)마저 흐르고있다. 갯마야는 효자문에서 남쪽으로 약900m의 위치에 있는마을이며 郭山은 제실이 있는 곳이기에 이름이붙여졌다. 500여년간 자손들이 살고있는 마을이다.